

방통위, SBS 재난방송 대응상황 현장점검

-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와 국민행동요령 방송으로 재난피해 최소화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21일(금) SBS (사장 박정훈) 목동 사옥을 방문하여 장마철 집중호우 관련 재난방송 대응상황과 제작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재난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전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방송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 서주기 바란다” 고 당부하고, “방통위도 집중 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재난방송관리팀	책임자	팀 장	이훈식 (02-2110-1442)
		담당자	사무관	류진원 (02-2110-1408)